

예술버스, 전남 어디든 달려갑니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의 하나로 전남지역 아동들을 찾아가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펼치는 ‘예술버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산골이나 어촌, 섬 등 문화 소외 지역을 찾다니며 공연, 미술, 제조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이다. 예술가가 직접 버스나 병원선을 타고 경로원, 학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린이와 노인을 상대로 맞춤형 체험 활동을 펼친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595개 시설을 방문하여 1만275명의 참여자들을 만났다.

올해에는 버스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찾아가 수 있도록 병원선과 연계해 진행되는 ‘예술선’을 ‘예술버스’와 함께 운행한다. 섬마을 주민들까지 방방곡곡 찾아갈 예정이다.

예술선은 전남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다려요 뽀기머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다림’에 대한 상상을 드로잉을 통해 풀어보는 프로그램으로 뽀기머신에서 뽀는 씨앗을 심고, 씨



문화 소외지역 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예술가 버스 타고 경로원·학교 등 방문
병원선 활용 섬마을 가는 ‘예술선’ 눈길
좀비 게임 연구·스마트폰 연주 등 다채

앗이 어떤 식물로 자랄 것인지 기다리는 과정을 드로잉으로 표현한 후 작품에 대해 공유하고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6월~10월까지 진행되는 예술선은 총 20회 중 6회까지 마쳤으며 신안군 사지도, 수지도, 진도군 대성남도 등 지역주민 117명이 참여했다.

예술버스는 전남지역의 아동들을 찾아가간다. 예술버스 프로그램인 ‘좀비 버스터즈 미디어 밴드’는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연구과 음악 연주 프로그램이다. 스마트기

기의 사운드 어플을 활용한 좀비 퇴치 게임과 연극을 접목시켜 수업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고, 음악 연주 어플을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연주해보는 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6월~8월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총 30회 중 19회까지 마쳤다. 현재까지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구례군 등 총 11개 지역 28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경기·강원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버스가 찾아가 일상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일상 한

스폰, 재미 한 스폰’을, 경성지역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3.5t 예술 트럭을 운행해 꿈 많고 패기 넘치던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한 ‘어르신 흥 부활 프로젝트-쿠바로 가는 타임머신’을 진행했다.

충청·경북지역에서는 1.5t 예술 트럭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다. 전혀 다른 지역을 상상하며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무대를 만드는 ‘가자! 세계속으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경남 도서지역에서는 목소리, 웃음소리 등 일상의 소리를 녹음해 준비된 반주와 섞어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돌고도는 목소리-섬마을 음악 다방’이 예술선을 통해 열린다.

예술버스 전라권 신청은 홈페이지(artebus.arte.or.kr/2017)에서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버스가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소외지역이나 문화예술 사업 혜택을 못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예술선은 오는 10월까지 병원선과 연계해 20회 운영된다. 문의 02-747-388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향 음악회 ‘춤추는 클래식’

2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과 광주시립발레단(이하 발레단)이 한 무대에 오른다.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가곡음악회 IV ‘춤추는 클래식’이 열린다.

총 8곡의 춤곡으로 구성된 이번 가곡음악회에서는 광주시향의 반주에 맞춰 발레단 무용수들이 공연을 펼친다.

김영연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은 궁정무곡인 포레의 ‘파반느’로 시작된다. 이어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 중 3악장, 비제 ‘아들의 여인’ 중 ‘미뉴에트’,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중 1번과 5번이 이어지며 1부 끝 곡으로는 슈트라우스 ‘천둥과 번개’ 폴카가 연주된다.

후반부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거장

으로 불리는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로 시작된다. 이어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꽃의 왈츠’가 연주된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이자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현대 프랑스 음악의 거장인 라벨이 ‘빈 왈츠의 예찬’이라고 불렸던 ‘라 발스’다.

이날 공연은 음악평론가 최은규의 해설로 클래식 속 춤 리듬에 대해 공부하며 듣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다. 최씨는 부천필 제1바이올린 부수석, 부천시립예술단 기획홍보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신여대, 예술의전당, 부천 필하모니, 포월당에서 강의하고 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g-jart.gwangju.go.kr) 참조. 문의 062-524-5086, 062-613-823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목포서 ‘우봉 이매방’ 무용경연대회

20일까지 참가 신청

‘제12회 우봉이매방전국무용경연대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우봉이매방경연대회는 한평생 한국의 전통 춤을 추고 사랑했던 고(故) 우봉이매방 선생의 뜻을 잇고 전통 춤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기획됐다.

경연은 전통 춤, 창작무용, 단체 무용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각 부문 우수자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국회의장상과 국회의원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명무부 대상은 국회의장상과 2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작년도 명무부 대상 수상자 문화원씨의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우봉 이매방 선생은 국가무형문



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평생 동안 전통춤을 위해 외길인생을 살아온 목포가 낳은 무용계의 거목이다. 경연 참가신청은 20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봉 이매방 아트컴퍼니 홈페이지(http://www.leemaebang.com)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2298-7001. /전은재기자 ej6621@

1년 전 떠난 아들을 위한 평범한 아버지의 추모시

이학영 의원 ‘그리운 하나로’ 출간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 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한 명이 더불어민 주당 이학영 의원의 아들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17일자 모 언론 보도의 한 대목이다. 슬픔의 당사자였던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제 아기가 갑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당했습니다. 대신 죽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일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시인이었고 시민운동가였다. 그보다도 서른 살 꿈 많은 청년



결을 떠나 버린 아들에게 바치는 추모시집이다. 시집에는 참척(慘劫·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의 아픔이 오롯이 배어 있다. 시집에는 아들의 1주기를 맞아 이 의원

‘하나로’를 둔 평범한 아버지였다.

최근 이 의원이 먼저 떠나보낸 아들 하나로에게 바치는 시집을 발간했다. ‘그리운 하나로’(문학들)는 너무 이른 나이에

이 쓴 시 76편과 아들을 기억하는 지인들의 추모 글, 이하나로의 삶을 담은 약전 등이 담겨 있다. 고인과 관련된 글에 사진들도 함께 수록돼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전쟁도 아닌데/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 맑은 하늘 아래/ 너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나”(“어쩌다가”), “이제 우리 집에/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 아랫집 걱정할 일도 없겠구나/ 화장지 헤프게 말아 쓰는 사람 없고/ ‘엄마’하고 부르며 들어와/ 애인처럼 팔 빌려 안아 주며/ 이빨로 어깨를 물어 주던 사람 없구나”(“이제 너 없으니”).

하나로는 집안의 기둥이었고 엄마에게

는 든든한 기사였으며 동생에게는 알곳은 지킴이였다. 아빠에겐 든든한 미래의 후계자이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였다.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파일럿을 꿈꾸며 비행연습을 하던 중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아들은 그렇게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저자는 “내가 그리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이 작은 책이라도 만들어 바친다”고 속내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984년 ‘실천문학’에서 펴낸 시선집 ‘시여 무기여’로 등단했으며 시집 ‘눈물도 아름다운 나이’, ‘꿈꾸지 않는 날들의 슬픔’, 산문집 ‘세기가 만약 하나의 집안이라면’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 전통음식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